

지리학 용어로서의 '地方'에 관한 역사적 고찰

- 官撰年代記와 초기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

이 호 상*

Historical Research of *Jibang* as a Geographic Term

Ho-Sang Lee*

요약 : 본 연구는 '地域'이라는 현대지리학용어가 도입되기 이전에 국내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용어를 '지방'이라는 코드명을 통해 고찰한 것이다. 지역의 개념으로 사용된 용어를 삼국사기 단계에서 1956년까지의 각종 문헌을 통하여 분석해 보고, 그 용어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표현되었으며, 근대지리학이 도입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外, 方, 外方, 地, 地面 등이 지역과 지방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용어들은 '지방'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었으며, 또한 시대에 따라 상이하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현대지리학적 개념의 지방과 지역은 근대지리학이 도입되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리학용어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지리학 기초용어의 오용과 남용을 줄이고, 지리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지역, 지방, 등질지역, 기능지역, 근대지리학, 기초용어

Abstract :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the terms which shared the same meaning with a present-day geographical concept region, or *jibang*(地方) in Korean, prior to the initiation of modern geography. The analysis of the annals of the pre-modern political regimes and the earliest geography textbooks ends up with the terms *oe*(外), *bang*(方), *oebang*(外方), *ji*(地), and *jimyon*(地面). These terminologies, although having had almost similar meanings that region intends, nonetheless deliver somewhat different connotation depending on the context and times in and during which they were used. Another finding of significance is that region and *jibang*, both central words in contemporary geography, began to be used only after the introduction, by way of Japan, of modern geography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colonial experience and subsequent political and social turmoil, however, results in careless uses of the terms in geography teaching and research. Efforts need to be continued to address the problems of misuse of these basic terms and, by doing so, to raise geographical pursuits on a right track.

Key Words : region, *Jibang*, homogeneous region, functional region, modern geography, basic term

1. 서론

일반적으로 지리학분야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는 '지역'과 '지방' 또는 '공간' 일 것이다. 이들 용어는 지리학의 궁극적 연구과제인 동시에 학문의 본질을 지칭하는 기본 개념으로서, 지리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달리 말하면 가장 기초적인 용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역'과

'공간'은 근대지리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한국 지리학의 용어로 보기 곤란하다(남영우, 2001).

지리학의 기초용어가 무엇이든 간에 지리학은 지역의 특성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W. Isard(1975)는 지역성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지리학을 지역과학(regional science)이라 불렀다. 다만 지리학계에서는 지역간 비교를 통하여 고유성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대학원생(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Korea University), leehs0812@hotmail.com

유사성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할 것인가의 견해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이는 지리학연구의 패러다임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고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지역(region)이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현대지리학에서는 지역이 등질지역과 기능지역의 양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지리학의 계량혁명 이전에는 등질지역적 측면에서 사용된 지역의 개념이었다. 일반적으로 지역에 대한 기능지역적 개념의 도입은 계량혁명 이후의 일이다. 그렇다면 '지역'이란 용어가 도입되기 이전에 국내에서는 어떤 용어가 그것을 대신하였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유사 이래로 지리에 대한 관심은 군사전략적인 측면에서나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 항시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며, 현존하는 각종 官撰 및 私撰 지리지와 지지서를 통해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리에 대한 관심이 존재하는 한 그것의 연구대상인 지역개념이 수반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공간'과 같은 지리학 용어가 유입되기 이전에 국내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용어들에 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즉 지역의 개념으로 사용된 용어를 고문헌에서 추출해 분석하고, 그들 용어가 근대지리학이 도입되면서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三國史記,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高宗純宗實錄 등의 고문헌을 비롯하여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 후 제1차 교육과정까지의 각종 지리교과서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CD-ROM 韓國歷史五千年』 중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고종순종실록에서 지역의 개념으로 사용된 지리학적 용어를 검색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검색된 결과는 반드시 원전과 대조하는 작업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행하여 번역본을 활용하는 데에서 초래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그리고 해방 전후의 각종 지리교과서를 정독하면서 시기별로 각 개념의 용례를 조사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출판된 지리교과서의 경우 우리나라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 근대이전의 관찬연대기에 수록된 용어분석

1) 三國史記

한국 古代史의 正史로 간주되는 삼국사기 원문에서 먼저 '地方'이란 코드명으로 검색해 보았다. 즉, 필자는 잠정적으로 地方이란 용어가 地表上の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지칭하는 한자문화권의 공통용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색한 결과 총 2건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두 사례 모두 面積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十三年 夏六月 于山國歸服 歲以土宜爲貢 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 地方一百里 恃不服……¹⁾

〈三國史記 新羅本紀 智證麻立干 13年〉

위 문장에서 傍點부분은 '땅은 사방 백리인데'로 해석을 하였지만, 다른 사례에서는 면적 혹은 넓이 등으로 해석하였다. 넓이의 단위가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면적의 개념으로 '地方'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에서의 '地方'은 한 단어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地와 方을 끊어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삼국사기 번역문에서 '지방'을 검색한 결과 총 72건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원문에서는 이 용어가 '地', '外', '方' 등으로 기술되었다. 특히 중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지방을 표현할 때에는 대부분 '外'를 사용하였는데, 아래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서울)과 지방의 의미로 '內外' 또는 '中外'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지방관을 가리키는 용어로 '外官'을 사용하였고, 중앙과 지방의 관리는 '內外官'이라고 칭하였다. 각 용어별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三十年 夏四月己亥晦 日有食之 樂浪人將兵來侵 見邊人夜戶不_レ露積被野 相謂曰 此方民不相盜 可謂有道之國……乃引還²⁾

〈三國史記 新羅本紀 始祖 赫居世 居西干 30年〉

三年 春正月 拜雄宣爲伊 兼知內外兵馬事 近宗爲一吉³⁾

〈三國史記 新羅本紀 逸聖尼師今 3年〉

二十五年 春正月 教許外官携家之任⁴⁾

〈三國史記 新羅本紀 法興王 25年〉

지표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로 아래의 사례와 같이 '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용례는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대개는 땅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다음의 기록이 가장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十二年 春夏旱 南地最甚 民飢 移其粟賑給之⁵⁾
〈三國史記 新羅本紀 逸聖尼師今 12年〉

그리고 지명 뒤에는 별도로 용어를 붙이지 않고 지명만을 기술한 경우도 있는데, 가령 패서지방을 '溟西'라고만 표현하는 식이다. 이러한 지명표기방식은 조선시대 말까지 지속되었으며, 고려사 이후에 '○○地面'과 같은 표기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명만을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요컨대, 삼국사기에서 볼 수 있는 지방의 개념으로 사용된 용어들은 대부분 중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표현되었고, '外'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부분적으로 '地'와 '方'도 이러한 의미로 함께 쓰였다.

2) 高麗史

다음으로, 삼국사기와 함께 우리나라 官撰史書의 또다른 正史인 고려사 원문에서 '地方'이란 코드명으로 검색해 보았다. 그 결과 「高麗世系」에 1건, 「世家」에 2건, 「志」에 1건, 「列傳」에 2건이 나타났다. 그러나 「世家」편의 사례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문의 기술년도가 명확하지 않으며, 조선 초기에 고려사가 편찬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례에서 나타나는 용어들이 고려시대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단정짓기가 곤란하다. 예컨대, 「高麗世系」의 〈虎景〉부분은 조선 세종대의 집현전 학사였던 鄭麟趾가 감수한 것으로 원문에 기록되어 있다. 〈虎景〉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又宣宗嘗爲光王 光卽楊州屬郡 官杭州屬縣 皆接東海 爲商船往來之地方 當懼禍 猶恐藏之不深……⁶⁾
〈高麗世系/虎景〉

위 사례의 경우, 원문에는 '地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것은 고려사를 편찬하였던 15세기 중반의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각 시대의 실록에서 현대지리학적 개념인 地方이 처

음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위와 같은 사례는 「列傳」²⁹/諸臣/南閩 등에서도 볼 수 있으나, 원전의 기술시기가 정확하지 않거나 해석이 모호한 것들이었다. 그 이외 地方은 삼국사기에서와 마찬가지로 面積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다음의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⁷⁾.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武陵 一云羽陵 地方百里 智證王十二年 來降 太祖十三年 其島人 使白吉土豆 獻方物……⁸⁾

〈志12/地理/東界/蔚珍縣〉

고려사 번역문에서 '지방'으로 검색하여 도출된 사례들 가운데, 태조에서 공양왕에 이르는 국왕 관련 기사를 수록하고 있는 「世家」편과 우왕·창왕대 「列傳」편의 사례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에 근거해 지방의 의미로 사용된 용어를 빈도수로 살펴보면 '外'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方', '地', '地面'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삼국사기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충렬왕 이후로 '地面'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地面은 이후 조선 중기까지 사용되었다. 그리고 '外'는 대부분 서울(중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예컨대, 서울(중앙)과 지방의 의미로 '中外', '內外', '京外'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표기방식은 일제강점기까지 '中央及地方' 등으로 사용되었다. 어느 한 방면의 땅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된 方, 地, 地面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也拿些箇布匹絹子段子等物 往那耽羅地面 買馬呵 恁那裏休禁者……⁹⁾

〈高麗史 列傳 49/禡王 12年(1386) 7月〉

그밖에 표 1에서 제외된 「志」, 「列傳」편에서도 지방의 의미로 사용된 용어들을 살펴보면, '外'가 16건, '地'가 12건, '外方'이 10건, '方'이 7건, '土'·'界'·'境'이 각 1건씩 나타났다.

이상의 삼국사기와 고려사를 통하여 고찰한 바를 정리하면, 地方은 면적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중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지방은 '外'로 표기되었다. 어느 한 방면의 땅을 일컫는 의미로는 '地面', '地', '方' 등이 사용되었다.

표 1. 고려사 번역문 '지방'의 검색결과

왕명	外	方	地	地面	界	外方	土	遐	外吏	계
태조	1, 19	•	15	•	•	•	•	•	•	3
혜종	•	•	•	•	•	•	•	•	•	0
정종	•	9	•	•	•	•	•	•	•	1
광종	19	•	•	•	•	•	•	•	•	1
경종	•	•	•	•	•	•	•	•	•	0
성종	6, 16	•	4	•	•	•	•	9	•	4
목종	0	•	•	•	•	•	•	•	•	1
현종	0, 2, 3	•	•	•	•	•	•	•	•	3
덕종	•	•	•	•	•	•	•	•	•	0
정종	•	•	•	•	•	•	•	•	•	0
문종	1, 2	35	•	•	•	•	•	•	•	3
순종	•	•	•	•	•	•	•	•	•	0
선종	•	•	•	•	•	•	•	•	•	0
헌종	•	•	•	•	•	•	•	•	•	0
숙종	•	7, 10	•	•	•	•	•	•	•	2
예종	4	11	7	•	•	•	•	•	•	3
인종	•	•	6	•	•	•	5	•	•	2
의종	•	•	•	•	•	•	•	•	•	0
명종	•	16	•	•	•	•	•	•	•	1
신종	•	•	•	•	•	•	•	•	•	0
희종	•	•	•	•	•	•	•	•	•	0
강종	•	•	•	•	•	•	•	•	•	0
고종	•	•	•	•	19	•	•	•	•	1
원종	•	13	12	•	•	•	•	•	•	2
충렬왕	•	33	•	3, 6②	76	•	•	•	•	6
충선왕	•	•	•	•	•	•	•	•	•	0
충숙왕	•	•	•	•	•	•	•	•	•	0
충혜왕	•	•	•	•	•	•	•	•	•	0
충목왕	•	•	•	•	•	•	•	•	•	0
충정왕	•	•	•	•	•	•	•	•	•	0
공민왕	6, 12, 18, 19	19	11	•	•	•	•	•	•	6
우왕	1, 2, 3②, 4, 6, 7, 9	9	•	12, 13	•	•	•	•	•	11
창왕	•	•	•	•	•	•	•	•	•	0
공양왕	2	•	•	3	•	•	•	•	•	2
계	25	10	6	6	2	1	1	1	1	53

주: 숫자는 각 왕의 재위년도를 뜻하고, 원안의 숫자는 횡수를 가리키며, '0'은 元年을 말한다.

3) 朝鮮王朝實錄

조선왕조실록 번역문에서 '地方'으로 검색하여 나온 220건의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¹⁰⁾. 전체적으로 고려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선조 이전의 조선 초기에는 서울과 대비되는 의미의 지방은 '外方', '外'로 표기되었는데, 세종실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且帶鳥角者或以羊角玳瑁爲帶外方鄉吏等或玉貫子或玉纓瑪瑙纓珊瑚纓或犀帶任然僭用……¹¹⁾

(세종 24년 9월 25일)

고려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방향의 땅을 지칭하는 용어로 '地面'이 주로 사용되었고, 그밖에 '方', '地', '土', '面' 등이 지방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地方의 표현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면적의 의미로 사용된 것들이 많았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현대지리학적 개념의 地方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世祖 13년으로 "...朝鮮國地方..."이라는 표현으로 기술되었다. 이는 地方이 疆域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그러나 地方의 표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선조대에 地方官이라는 용어가 기술되면서 부터이다. 또한 선조대에 이르러 용어 사용에 있어서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기존의 地面, 外方, 外 등의 표현이 '地方'으로 단일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지방의 개념으로 사용된 용어들이 의미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 왔으나 이 시기에 이르러 '地方'으로 통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外方', '外' 등은 '地方'과 혼용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관의 경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초기에는 外職, 外官 등의 관직명 표현으로 사용되었고, 삼국사기와 고려사에서도 '外官', '外吏' 등으로 표현되었으나 선조 대에 이르러 '地方官'이라는 표현으로 일원화되었다. 다만, 서울과 지방의 관리라는 의미로 '京外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地方官'이라고 표기되었으며, 이러한 표현방식은 일제강점기까지 지속되었다. 요컨대, 地方과 地方官의 용어변천과정이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선조 대에 이르러 용어의 변화가 나타

표 2. 조선왕조실록 번역문 '지방'의 검색결과

왕명	地方	地面	外方	土	地	面	方外	外	方	地方官	外職/外官	계
태조	•	•	•	•	•	•	•	•	•	•	•	0
정종	•	•	•	•	•	•	•	•	•	•	•	0
태종	•	•	•	•	•	•	•	•	•	•	•	0
세종	•	13, 14, 22	7, 24	•	오례	•	•	10	•	•	4, 10, 14	10
문종	•	0	•	•	•	•	•	•	•	•	•	1
단종	•	•	•	•	•	•	•	•	•	•	•	0
세조	13	8, 10, 13	•	•	13	3	•	•	•	•	•	6
예종	1	1②	•	•	•	•	•	•	•	•	•	3
성종	•	14, 18	9	•	•	•	•	•	•	•	•	3
연산군	•	•	•	•	•	•	•	•	•	•	•	0
중종	5	•	•	•	•	•	•	•	•	•	•	1
인종	•	•	•	•	•	•	•	•	•	•	•	0
명종	•	•	2	•	•	•	•	•	•	•	•	1
선조	25②, 31, 33⑩	•	•	•	•	•	•	•	•	26③, 27, 31, 39	•	19
광해군	•	•	•	•	•	•	•	•	•	•	•	0
인조	11	•	•	•	•	•	•	•	•	2, 4, 27	•	4
효종	•	•	•	•	•	•	•	•	•	•	•	0
현종	•	•	•	•	•	•	•	•	•	•	•	0
숙종	7, 9, 27, 36, 37⑫	•	•	20②, 30	•	•	•	•	•	1, 7, 8, 11, 16③, 17, 21, 23, 25, 27④, 29, 30③, 36⑧, 37③, 43	•	50
경종	•	•	•	0	•	•	•	•	•	0②	•	3
영조	10②	•	5, 9	•	•	9	13②	•	27	1, 4③, 5③, 8, 9②, 10⑤, 13④, 14③, 21⑤, 27, 33③, 34, 35, 39, 46, 49, 행정②	•	46
정조	0, 2, 5, 6, 7	•	•	•	•	•	•	•	•	0, 1②, 3, 5②, 6, 7②, 8③, 9, 11②, 16②, 19	9	24
순조	1, 3, 9, 23⑧, 32⑨	•	•	•	•	•	•	•	•	1②, 3, 6, 15, 29②, 30, 32②	•	30
헌종	•	•	•	•	•	•	•	•	•	3②, 4②, 7②, 9, 13, 15	•	9
철종	•	•	•	•	•	•	•	•	•	8③, 9, 12④, 14②	•	10
계	60	11	6	4	2	2	2	1	1	127	4	220

주: 숫자는 각 왕의 재위년도를 뜻하고, 원안의 숫자는 횟수를 가리킨다.

나는 것은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상에서 이러한 용어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임진왜란 직후부터이다. 언어학적 측면에서 볼 때, 언어의 변천과정에서 사회적·역사적 배경은 언어사용의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 후술하겠지만, '지방'의 변천과정에 있어서 역사적 배경은 용어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래의 사례는 원문에 '地方'과 '地方官'이 함께 나타난 경우이다.

……往鳳城欲同朝鮮國官一員查明殺人地方可也……往朝鮮相近地方漁採若違禁漁採被朝鮮捉送從重治罪該地方官一併議處別地方漁採人亦令捕送論罪……渭原郡與大國船廠所屬地方相近或與奉天地方相近又曰島夢金鼎足島等地與何處相近使臣對以渭原開與奉天府地方相近島夢金等地聞與奉天所屬金州復州等地相近又曰鴨綠江土門江一帶

皆係我國地方但因……¹²⁾

〈숙종 37년 3월 5일〉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18세기에 이르러 '地方'이 서울과 대비되는 개념, 어느 지역을 명명하거나 지표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조선왕조실록 전체에서 그다지 흔한 경우는 아니다. 예컨대, 지역명을 말할 때에 '○○지방'이라는 표현보다는 '지방'을 함께 쓰지 않고 '○○'이라고만 기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奉天府地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지역구분의 지표가 될 수 없는 행정구역명을 붙여 사용한 誤用的 사례이다(남영우, 2001). 추가적으로, '鴨綠江土門江一帶'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圈域의 의미를 지닌 기능지역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삼국사기에서 조선왕조실록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지역구분은 대부분 등질지역의 개념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위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하천을 중심으로 한 유역권을 의미하는 기능지역적 개념들이 나타났다.

요컨대, 조선왕조실록에서 지방의 개념을 가진 용어들의 사례는 선조대를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조 이전에는 지방의 개념을 가진 용어로 '地面', '外', '地', '外方' 등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선조 이후로는 '地方'을 많이 사용하였고 이전부터 사용해 왔던 용어도 일부 혼용하여 기술되었다.

3. 근대 및 현대기 지리용어의 변천

1) 高宗純宗實錄

고종순종실록의 원전에서 '地方'의 코드로 검색한 결과 975건의 사례가 나왔으며, 그 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지금까지 지방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용어들의 사례가 매우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만 나타났었는데, 갑오개혁 이후에는 법률, 군사, 행정, 교육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地方'이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어휘의 변화는 당시 급변하였던 사회상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두 용어의 사례가 이 시기에 급증

한 것은 당시 사회적·역사적 배경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문학계에서 19세기 말 갑오개혁 이후를 현대국어의 성립시기로 보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홍종선, 1999).

고종·순종 대에 이르러서는 '地方'의 사용이 보다 보편화되었는데, 표 3에서 地方과 地方官의 사례를 각각 시계열통계로 나타낸 것이 그림 1과 그림 2이다. 두 그림에서 '地方'과 '地方官'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시기는 고종 31년(1894년), 즉 갑오개혁 이후에 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종 19~21년(1882~1884년) 사이에서도 지방과 지방관의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이 시기는 임오군란에서 갑신정변으로 이어지는 사회혼란기이며, 동시에 외국의 신식문화가 도입되기 시작하던 시기로 고종 31년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로 간주된다¹³⁾.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직후부터 '地方'과 '地方官'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地面'과 '外方'이 몽골의 침입 이후부터 사용되었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地方'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19세기 후반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지방과 지방관의 사용빈도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지방'이 많이 사용되었을 때에는 '지방관'도 그에 비례해 사용되었는데, 이는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표 2에 의하면, '지방'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선조대에 '지방관'이 처음 기술되기 시작하였으며, 숙종에서 순조에 이르기까지 두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종순종실록 번역문에서 '지방'으로 검색한 결과 1,561건이 도출되었는데, 지방이 '地方' 외에도 '外', '外方', '地', '鄉' 등으로 기술되었다. 예컨대 내륙지방은 '內地'로 표현되었고, 지방관을 '外官'으로도 표기하였다. 그리고 서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地方'도 사용되었지만, '外'와 '鄉'을 함께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고종대까지 '地方'이 면적의 의미로 사용된 사례가 나타났다. 그 외의 용어들은 출현빈도가 드물게 나타났으며, 고종 초기에 대부분 나타났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고종순종실록 원전에서 '地方'의 검색결과

용어	검색 사례	계	비고
地方	고1-2, 고2-1, 고3-2, 고4-2, 고11-2, 고13-6, 고14-3, 고16-2, 고17-3, 고19-8, 고20-8, 고21-16, 고22-5, 고23-2, 고25-2, 고26-7, 고27-4, 고28-1, 고29-2, 고30-4, 고31-23, 고32-19, 고33-26, 고34-14, 고35-7, 고36-8, 고37-20, 고38-3, 고39-1, 고40-8, 고41-11, 고42-6, 고43-7, 고44-6, 순0-3, 순1-8, 순2-32, 순3-4, 순7-2, 순9-2, 순10-1, 순16-3, 순17-3	299	
地方官	고1-14, 고2-9, 고3-5, 고4-8, 고5-3, 고6-4, 고8-5, 고9-8, 고10-3, 고11-6, 고13-11, 고14-8, 고15-1, 고16-2, 고17-4, 고19-27, 고20-26, 고21-19, 고22-6, 고23-9, 고24-6, 고25-9, 고26-8, 고27-10, 고28-2, 고29-9, 고30-2, 고31-33, 고32-10, 고33-23, 고34-17, 고35-12, 고36-19, 고37-12, 고38-6, 고39-15, 고40-5, 고41-17, 고42-17, 고43-29, 고44-10, 순0-7, 순1-13, 순2-47, 순3-8, 순5-1, 순6-2	527	地方長官, 內部地方局長, 地方局長
地方制度	고31-3, 고32-5, 고33-5, 고34-2, 고35-1, 고36-2, 고37-2, 고39-1, 고40-1, 고42-2, 고43-4	28	
地方稅	고20-2, 고21-2, 고23-1, 고29-1, 고32-1, 고36-2, 고38-1, 고39-1, 고43-3	14	
地方廳	고32-15, 고35-1, 고37-7	23	
地方行政	고42-1, 고32-2	3	
地方警察	고32-1, 순2-1, 순3-1	3	
地方委員會	순0-2, 순2-1	3	
地方裁判所	고26-1, 고31-1, 고32-16, 고33-3, 고35-1, 고36-4, 고41-2, 고44-2, 순1-4, 순2-4	38	地方法院
地方隊	고33-9, 고34-3, 고35-2, 고36-6, 고37-2, 고43-1	23	
地方(면적)	고26-3, 고34-1, 고40-1	5	
기타	地方鎭(고4-2), 地方郡(고26-1), 地方規則(고26-1), 地方鐵道(고33-2), 地方政治(고43-1), 地方學校(고43-2)	9	
합계		975	

주: '고30-5'는 고종 30년에 사례가 5개라는 의미이다.

……亦令內部警衛院 飛飭各地方及各港市 設法`緝 以爲指日屏息……則觀察以下斷不寬恕之意 措辭知委何如制曰 良由於法紀之懈弛而然也 依所奏 飭 而無論中外各其境內 如有不能舉職者 別般論警 斷不容貫 期於 清¹⁴⁾
 〈高宗 40年 12月 18日(陽曆)〉

요컨대, 삼국사기에서부터 지방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용어들이 고종대에 이르러 현대지리학적 개념의 용어로 정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당시 사회적 정황으로 판단컨대 일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종순종실록의 편찬이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졌고, 편찬과정에 일본인의 관여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용어사용에 있어서도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삼국사기에서 조선왕조실록에 이르기까지 地域이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고종순종실록에서 '地域'을 검색할 결과 3건의 사례를

발견하였다. '地域'이 처음 사용된 것은 순종 2년(1909년) 간도에 관한 청일협약 문건이 작성된 당시인데,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四日, 關間島日清協約, 成……第三條, 淸國政府는 從來와갓치 圖們江北의 壘地에 在하야 韓民의 居住를 承准함, 其地域의 境界는 別圖로써 此를 示함……¹⁵⁾
 〈純宗 2年 9月 4日(陽曆)〉

그러나 이는 일본인에 의해 작성된 문건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로 보는 것은 곤란하며, 전술한 일본의 영향을 뒷받침하는 사례라 하겠다. 이 협약이 체결된 지 2개월 후에 발표되었던 內閣告示 第41號의 내용에 “…圖門江北一帶壘地間島의 地域은 從來韓淸兩國의 所屬이 未定인바…”라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 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地域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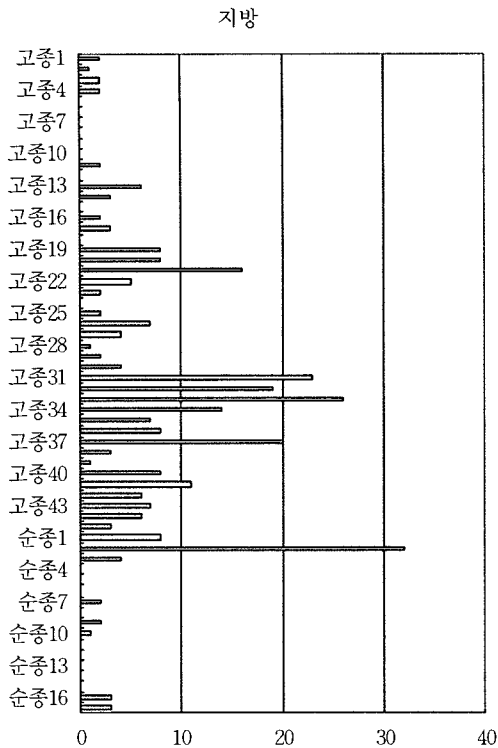


그림 1. 고종순종실록 원전의 '地方' 출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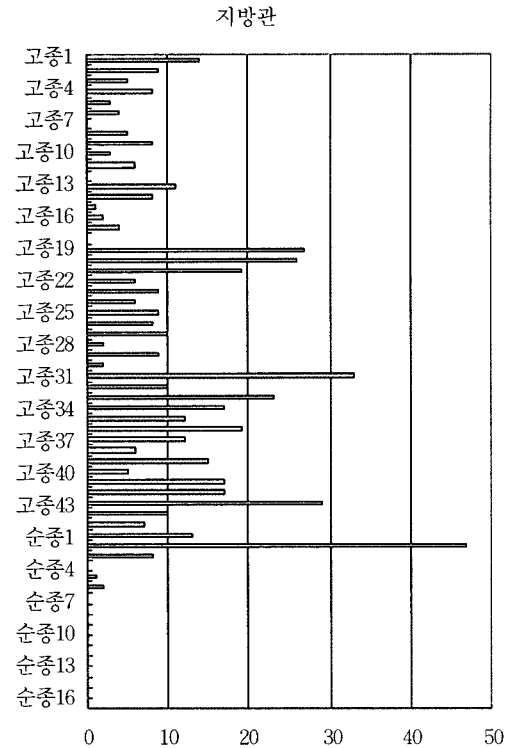


그림 2. 고종순종실록 원전의 '地方官' 출현 빈도

옳을 것이다.

고종 대에 '地方'이 많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시기까지 地方이 地域의 개념까지를 포함한 용어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地域'이 사용되기 이전에는 '地', '處' 등의 용어가 지역의 의미로 병용되었다. 이러한 현대지리학적 개념의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誤用 사례도 늘어났는데, 平安道地方, 龍山地方, 京畿地方, 黃海道地方, 江原道地方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요컨대, 고종순종실록에서는 현대지리학적 개념의 '地方'이 갑오개혁 이후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하였지만,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外', '地' 등의 용어들이 혼용되면서 용어의 개념정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로 사료된다.

2)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 지리교과서

근대 지리학의 용어를 검색하기 위하여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발행되었던 지리교과서들 중에서 11권의 지리교과서¹⁶⁾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필자는 당시 일본에서 출판된 지리교과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술된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본고에서 문헌조사를 실시한 자료들이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편찬된 왕조의 실록이었던 반면, 개화기부터는 지리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일관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각 왕조의 地理志도 분석을 하였으며, 시대별 용어사용의 흐름을 파악함에 있어 큰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시대에 편찬된 고종순종실록과 개화기에서 1926년까지의 지리교과서들을 분석하였을 때, 용어의 사용 빈도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각 사례들에서 용어의 개념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각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지방'의 의미가 고종순종실록과 같은 맥락에서 쓰여졌으며, 현대지리학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이후의 지리교과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문헌자료 선정상의 문제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시기의 지리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三南地

方·西伯利亞地方·黑龍江地方·阿穆爾地方·喜馬拉耶地方 등과 같이 지역을 명명하거나, 熱帶地方·溫帶地方·最寒地方·山岳地方·森林地方·沿岸地方·海岸地方 등과 같이 지표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등질지역의 의미로 '地方'이 사용되었다. 또한 중앙과 대비되는 용어로 기존의 '外'와 같은 용어보다는 '地方'이 많이 사용되었다. 『中等萬國新地志』(1910)에서는 다양한 용어가 나타났는데 '域', '區域', '帶', '處', '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한제국시대에서부터 1920년대 말까지 '地域'이 사용된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본에서 발행되었던 지리교과서에서는 이 시기에 '地域'이 사용된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지리교과서에서는 1933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初等地理書 卷二』에서 처음으로 '地域'이 기술되었다. 그러나 이 사례도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부분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地域이라는 용어가 1909년에 처음 사용된 이후 1933년까지 사용된 사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시기까지 '地域'이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가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1940년대 지리교과서에서는 地域, 地方, 地帶, 地區 등의 용어들이 혼용되어 나타났다. 예컨대, 工業地域이라는 표현은 '工業地區', '工業地帶'와 같은 표현과 혼용되었으며, '海岸地帶'와 '海岸地方'도 서로 병행되어 사용되었다. 이는 각 용어간의 개념 정립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오랜 세월을 걸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역·지방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던 용어들이 짧은 시기에 현대지리학적 개념의 용어들로 대체되면서 비롯되는 일련의 과정일 것이다.

그리고, 1944년에 발행된 『中等地理 一』에서는 地帶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赤道地帶·重工業地帶·輕工業的地帶·山岳地帶·黑土的地帶·農業地帶·牧羊地帶·海岸地帶·東の地帶·牧畜地帶·(春)小麥地帶·森林地帶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근대지리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행정적 지역구분에서 점차 지리적 지역구분까지 지역구분의 개념이 확대되었으며, 그것은 용어의 사용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제시대 말에 발행된 지리교과서가 해방

이후 발행된 지리교과서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근대에 우리나라의 지리학 용어들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현대지리학적 개념의 '지역'·'지방'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해방 후에 한글로 기술된 지리교과서를 편찬하면서부터 정립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3) 1945년~1956년 지리교과서

다음으로, 필자는 일제강점기 이후의 용어를 고찰하기 위하여 해방 이후에 발행된 11권¹⁷⁾의 지리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방 이후에 지리교과서가 한글로 발행되면서 지방이나 지역 등의 용어사용이 일반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40년대 초에 발행되었던 지리교과서에서 나타났던 地方·地域·地帶와 같은 용어들의 혼용은 1956년에 발행된 제1차 교육과정의 지리교과서에 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이 시기의 지리교과서에 기술된 용어들의 주요 사례들을 종합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사례들을 보면 현대의 지리학적 용어들과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지리교과서를 집필한 저자들이 대부분 현대지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지리교과서를 저술하였기 때문에 과거의 지리교과서와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지방의 개념은 현대지리학의 등질지역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어 사용되어 왔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 '지역'과 '지방'이 구분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표 4에서 지역과 지방의 구분이 모호한 사례들도 있지만, 이전 시기의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두 용어가 보다 현대지리학적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지방이 지역보다 공간적 범위가 넓은 지표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으며, 지대와 지구의 사례들도 현대지리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등질지역적·기능지역적 개념들을 바탕으로 용어가 선정된 사례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용어의 오용사례도 나타났는데, 경기지방, 함남지방, 평북지방, 서울지방 등과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지방이라는 용어는 등질지역의 개념에 속하였는데, 이러한 등질지역의 개념을 사용할 때에

표 4. 1945년 이후 지리교과서의 용어 사례

용어	사례
地方	화북지방, 몽고지방, 아마존지방, 지중해지방, 관서지방, 경기지방, 함남지방, 평북지방, 서울지방, 남대천유역지방, 기호지방, 기북·남지방, 광랑만지방, 경인지방, 북한지방, 해안지방, 대륙지방, 양극지방, 적도지방, 고위도지방, 아열대지방, 적도다우지방
地域	지중해지역, 경계지역, 변경지역, 동부지역, 경인공업지역, 남해안공업지역, 호남공업지역, 문명지역, 상류지역, 해안지역, 연안지역, 습곡지역, 빙식지역, 고산지역, 열대지역, 열대계절풍지역, 온대지역, 사막지역, 호수지역, 화산지역, 용기지역, 건조지역, 화강암지역, 석회암지역, 아적도지역, 계절풍지역, 회귀선지역, 사반나(Savanna)지역
地帶	종합공업지대, (우랄)공업지대, 홍남공업지대, 중공업지대, 생산지대, 광공업의 중심지대, 인구조밀지대, 접미지대, 문화지대, 삼척공업지대, 경인공업지대, 중공업지대, 서부공업지대, 북부공업지대, 광산지대, 목축지대, 농업지대, 임업지대, 삼림지대, 완충지대, 국경지대, 면화지대, 잡곡지대, 옥수수지대, 밀지대, 사육지대, 밀림지대, 염전지대, 제염지대, 탄광지대, 곡창지대, 농산지대, 보양지대, 김양식지대, 온천지대, 도작지대, 화전지대, 산간지대, 해안지대, 초원지대, 사막지대, 황토지대, 석회암지대, 무역풍지대, 고기압지대, 동토지대, 흑토지대, 함몰지대, 사반나지대, 용암지대, 무역풍지대, 편서풍지대, 고원지대, 몬순지대, 황토지대, 중위도고기압지대
地區	성동지구, 성서지구, 강남지구, 중앙지구, 관북지구, 공업지구, 관서지구, 경인지구, 부산지구, 삼척지구

는 지역성을 뜻하는 지리적 事象이 지역구분의 지표가 되어야 하며 지리적 사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지역명을 정해야 한다. '경기', '함남', '서울' 등의 지명은 지역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용어선정에 있어서 지명이 도시일 경우에는 '圈' 등의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전 시대에서 나타났던 오용사례들과 유사한 것들이며,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지리학계에서 범하고 있는 지리학 용어의 오용사례들과도 유사하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지리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지리학 기초용어들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본 연구는 지역이라는 지리학용어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이전에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지방이란 용어를 실마리로 고찰을 해보았다.

삼국사기에서 제1차 교육과정의 지리교과서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헌을 살펴본 결과, 지방과 지역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주요 용어들을 종합하면 그림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에서 각 시대별로 사용되었던 용어들을 살펴보면, 삼국사기 단계에는 지방의 개념으로 '外', '地', '方'이 사용되었다. 고려사 단계에서도 이들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고려 중·후기에는 '地面', '外方', '土'가 쓰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 사용되었던 용어들과 함께 '面', '地方', '方外' 등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선조대에 이르러 조선 초기까지 사용되었던 용어들이 '地方'으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였고, 서울과 지방이라는 표현을 할 때에는 '地方'보다 '外'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地方官은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外官', '外職', '外吏' 등의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선조대에서부터 '地方官'으로 쓰였다. '地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지방의 관리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中外官'이라고 칭하였다. 갑오개혁을 거쳐 대한제국시대로 접어들면서 '地方'과 '地方官'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현대지리학적 개념의 용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 말에 地域·地帶·地方·區域 등의 용어들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였고, 해방 이후 한글로 편찬된 지리교과서가 발행되면서 현대지리학적 개념의 용어들이 정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지역의 개념으로 사용된 용어들의 변천요인으로 사회적·역사적 요인과 언어학적 요인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즉 언어의 변화가 사회적·역사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한자를 오랜 세월 사용해온 우리나라는 근대에 들어 일본어와 한글을 사용하면서 용어사용에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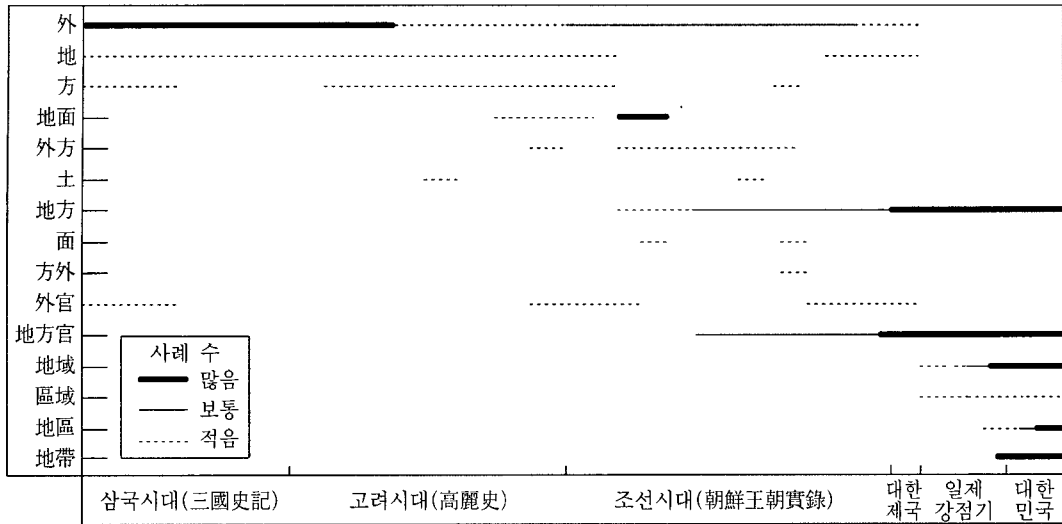


그림 3. 시대별 용어 사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지역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용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지방과 지역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용어들을 의미별로 살펴보면, 첫째, 중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 용어로는 '外', '方', '外方', '土' 등이 사용되었다. 둘째, 지표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은 '地'로 표현되었다. 셋째, 지역을 명명할 때에는 '地面'이 쓰였고, 마지막으로 '지방'보다 공간적 범위가 좁은 地域의 개념일 때에는 '處', '地' 등으로 표현되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이 지방과 지역을 의미하는 전통적인 용어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근대지리학이 도입되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방'과 '지역'이 현대지리학적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방이라는 개념의 전통적인 한국지리학의 용어들은 그 의미에 따라 달리 사용되었으나, '地方'이 사용되면서 점차 기존의 용어들이 '地方'으로 흡수됨에 따라 地方이 내포하는 의미도 다양해졌다. 현대국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던 갑오개혁 이후부터 일본의 영향으로 근대지리학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地方'이 다시 지리적 개념에 따라 '地域', '地方' 등으로 분화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과 '지역'의 용어사용에 있어서 일종의 언어적 여과작용이 없이 근대지

리학의 용어들이 도입되어 사용됨에 따라 용어간 개념적 혼란이 초래되었고, 지리학 기초용어의 오용과 남용의 사례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가령, 전술한 바와 같이 경기지방·강원도지방·전남 지방·예산지방 등과 같은 용어선정의 오류를 본 학회지의 게재논문¹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앞으로 그 밖의 지리학 기초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들이 축적될 때 지리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註

- 1) 13년(512) 여름 6월에 우산국이 항복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바쳤다. 우산국은 명주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혹은 울릉도라고도 한다. 땅은 사방 백리인데,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항복하지 않았다……
- 2) 30년(서기전 28) 여름 4월 그믐 기해에 일식이 있었다. 낙랑인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침범하려다가 변경 사람들이 밤에도 집의 문을 잠그지 않고, 노적가리를 등에 그대로 쌓아둔 것을 보고는 서로 말하였다. "이 지방 백성들은 서로 도둑질을 하지 않으니 道가 있는 나라라 할 만하다……이에 군사를 이끌고 되돌아갔다."
- 3) 3년(136) 봄 정월에 雄宣을 이찬으로 삼아 충양과 지방의 군사 일을 겸하여 맡아보게 하고 近宗을 일길찬으로 삼았다.
- 4) 25년(538) 봄 정월에 지방관이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는

- 것을 허락하였다.
- 5) 2년(145) 봄과 여름에 가뭄었는데, 남쪽 지방이 가장 심하여 백성이 굶주렸으므로 곡식을 옮겨 나누어주어서 진휼하였다.
 - 6) ……또 선종은 일찍이 光王이 되었는데 光郡은 곧 楊州의 속군이요 嶺南은 抗州의 속현이니 다 동해에 접하여 있어 상선이 왕래하는 지방이었으므로 화를 무서워하여 항상 깊이 숨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 7) 이러한 사례는 世家01/太祖 八年 九月, 列傳09/諸臣/尹璫①에서도 나타난다.
 - 8) ……신라 때 우산국이라 칭하고 武陵 또는 羽陵이라고도 하였다. 넓이가 100리이며 智證王 12년에 항복하여 왔다. 태조 13년에 그 섬사람 白吉士로 하여금 方物을 바치게 하였다……
 - 9) ……이제 우리도 여기서 布匹 비단 綢緞 등의 물건을 가지고 거기 탐라 지방으로 가서 馬匹을 구매하려 할 적에 그대들은 거기서 이를 금지하지 말라……
 - 10) 원전검색은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려 한다. 조선왕조실록 번역문에서 '지방'으로 검색하였을 경우 총 9,098건의 검색결과가 나왔는데, 이 모두를 원전과 대조하지는 못하였다. 번역문에서 '地方'으로 검색하여 나타난 결과들만으로도 용어사용의 큰 맥락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11) ……또 鳥角帶를 띠는 사람이 혹은 羊角이나 玳瑁로 띠를 만들고, 지방의 향리 등도 혹은 玉貫子, 혹은 옥갓끈·마노 갓끈·珊瑚 갓끈을, 혹은 犀帶를 제멋대로 참람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12) ……봉성으로 가니, 조선국 관원 1원과 같이 살인한 지방을 명확히 조사하는 것이 옳다……조선과 서로 근접한 지방에 가서 漁採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만약 금령을 어기고 어채하다가 조선에서 붙잡아 보내오면 중한 율을 좇아서 治罪할 것이며, 그 지방관도 한결같이 모두 議處하겠다. 다른 지방에서 어채한 사람도 또한 잡아 보내오면 論罪하도록 하고……'위원군은 중국의 삼창 소속의 지방과 서로 가까운가? 혹은 봉천 지방과 서로 가까운가?'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도몽금·정족도 등지는 어느 곳과 서로 가까운가?' 하고 하기에, 사신이 대답하기를, '위원군은 봉천부 지방과 서로 가깝다고 들었고, 도몽금 등지는 봉천의 소속인 金州·復州 등지와 서로 가깝다고 들었습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압록강·도문강 일대는 모두 우리나라 지방에 관계되는 데……'
 - 13) 또한 고종 2년(1865년)에 편찬된 『大典會通』에는 지방과 지방관의 검색사례가 총 17회에 불과하다. 그 사례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지방관으로 사용되었으며, 지방보다는 '外', '地' 등의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14) ……또한 내부 警衛院으로 하여금 각 지방과 각 항구 저자들에게 급히 申飭하여 규정을 세우고 엄담하여 잡아냄으로써 가까운 시일 안에 종식시키도록 할 것입니다……제의대로 특별히 신척하고 수도와 지방을 물론하고 각 경내에서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경우 별도로 처벌하고 단연 용서치 않을 것이니 기어이 도적을 깨끗이 없앨 것이다."라고 하였다.
 - 15) 간도 일청 협약이 맺어졌다……제3조. 청국 정부는 이전

과 같이 도문강 이북의 개간지에 한국 국민이 거주하는 것을 승인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로 이를 표시한다……

- 16) 본고에서 조사한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의 지리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廣文社, 1901, 大韓地誌, 廣文社; 靑雲犬, 1910: 文部省, 1925: 文部省, 1926: 守屋荒美雄, 1931: 朝鮮總督府, 1932: 朝鮮總督府, 1933: 守屋荒美雄, 1934: 守屋荒美雄, 1940: 田中啓爾, 1941: 文部省, 1944.
- 17) 본고에서 조사한 해방이후 지리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최복현·이지호·김상호, 1949: 최복현·이지호·김상호, 1949: 이지호, 1951: 이지호, 1951: 이지호, 1951: 오준영, 1955: 이지호, 1956: 최홍준, 1956: 장창균, 1956: 김상호, 1956: 박노식, 1956.
- 18) 이러한 지리학 기초용어의 오류는 장재훈(1966), 이기석(1968), 박노식·조동규·길용현(1971), 오홍석(1977), 장보용(1979) 등의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文獻

- 廣文社, 1901, 大韓地誌.
- 김상호, 1956, 우리나라지리, 일조각.
- 남영우, 2001, "地理學 基礎用語의 誤用과 濫用," 대한지리학회보, 72, 3-4.
- 박노식, 1956, 우리나라지리, 동국문화사.
- 박노식·조동규·길용현, 1971, "한국의 새농촌 조성과 재배치 -강원도지방을 중심으로," 지리학, 6(1), 81-98.
- 오준영, 1955, 인문지리, 배문사.
- 오홍석, 1977, "예산지방의 과원촌락연구," 지리학, 12(2), 35-54.
- 이기석, 1968, "구읍취락에 관한 연구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지리학, 3(1), 31-45.
- 이지호, 1951, (중등사회생활과) 최신 우리나라지리, 민교사.
- 이지호, 1951, (중등사회생활과) 최신 자연환경과 인류생활, 민교사.
- 이지호, 1951, (중등사회생활과) 최신 먼나라지리, 민교사.
- 이지호, 1956, 한국지리, 을유문화사.
- 장보용, 1979, "농촌주택 개량사업에서 파생되는 문제와 그 대책 -전남지방의 전통 농촌주택과 개발농촌주택의 비교연구," 지리학, 4(1), 41-52.
- 장재훈, 1966, "산록완사면 지형에 대한 연구 -구례·제천·충주지역을 중심으로," 지리학,

이 호 상

- 2(1), 35-43.
- 장창균, 1956, 우리나라 지리, 대동문화사.
- 朝鮮王朝實錄, 1955, 國史編纂委員會.
- 최복현 · 이지호 · 김상호, 1949, (중등사회생활과) 자연환경과 인류생활, 박문출판사.
- 최복현 · 이지호 · 김상호, 1949, (중등사회생활과) 먼 나라 지리, 박문출판사.
- 최홍준, 1956, 중등지리(1), 박문출판사.
- 홍종선, 1999, “현대 국어 연구를 위한 언어 자료,” 언어정보, 3,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2.
- Hulbert, H.B., 1889, 스민필지.
- CD-ROM 三國史記(國譯·原典), 2001, 서울시스템 주식회사.
- CD-ROM 高麗史(國譯·原典), 2001, 서울시스템주식회사.
- CD-ROM 朝鮮王朝實錄(國譯), 2001, 서울시스템주식회사.
- CD-ROM 高宗純宗實錄(國譯·原典), 2001, 서울시스템주식회사.
- CD-ROM 大典會通(國譯·原典), 2001, 서울시스템주식회사.
- 주식회사.
- 文部省, 1925, 尋常小學地理書 卷一.
- 文部省, 1926, 尋常小學地理書 卷二.
- 文部省, 1944, 中等地理 一, 朝鮮教學圖書株式會社.
- 朝鮮總督府, 1932, 初等地理書 卷一,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 朝鮮總督府, 1933, 初等地理書 卷二,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 守屋荒美雄, 1931, 新選地理, 帝國書院.
- 守屋荒美雄, 1934, 新選地理, 帝國書院.
- 守屋荒美雄, 1940, (實業) 新選地理, 帝國書院.
- 日本地誌研究所, 1977, 地理學辭典, 二宮書店, 487.
- 田中啓爾, 1941, (女子中等) 日本地理, 三省堂.
- 菁雲叟, 1910, 中等萬國新地志, 廣學書鋪.
- Isard, W., 1975, *Regional Science Studies Series 1: Location and Space-Economy*, The M.I.T. Press, Cambridge.

최초투고일 03. 03. 03

최종접수일 03. 06. 02